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농부가 되기까지

두 번째 이야기

닭과 함께 사는 작은 농부들

세 번째 이야기

농부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꿈

네 번째 이야기

시간을 쫓으며 땅을 기르는 농사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8월~9월



아로니아와 오디나무 아래에서 뛰어논다는 닭이 낳은 달걀을 부지런히 담아오는 파파팜&밀마운트 농가. 유정란 외에도 철마다 탐스러운 채소를 다양하게 가져오는 이 농장의 풍경이 정말 궁금했다. 이 여름 울창한 나무 아래 닭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온갖 것들이 풍성할 채소밭의 모습은 어떨까.

땅 위에서 햇볕과 바람을 받으며 온갖 채소를 사람과 나누어 먹고 자라는 닭의 달걀을 받고, 그 분변으로 기름진 땅을 일구어 농사짓는 가족. 부모님의 농장인 ‘파파팜’에서는 오디나무 아래 사는 닭과 함께 수십여 가지 채소가 오직 자연의 힘에 기댄 농부의 손에서 자라난다. 부모님의 집에서 귀농생활을 시작했던 딸은 농사지으며 연을 맺은 남편과 함께 자립하는 농가의 꿈을 ‘밀마운트’ 농장을 통해 실현해가고 있다. 산꼭대기에 자리한 이곳에서 닭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가평의 풍경을 오롯이 즐기며 아로니아 나무 아래 풀밭에서 뛰어논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
8월을 맞이하며,
닭과 함께 땅을 일구는 가족,
파파팜&밀마운트를 만났다.

파파팜&밀마운트

네 번째 이야기

시간을 쏟으며 땅을 기르는 농사



부모님의 농장, 파파팜

닭통으로 만든 좋은 땅이 큰 자랑거리예요.

쌀은 줘도 흙은 못줘요.

작황이 안좋아도 ‘닭이 맛있게 먹겠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황찬호: 전체 농사 면적은 2천 평 정도 되고, 우리
부부가 다 돌보고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일부 있는
데, 워낙 오래된 거라 별다른 설비 없이 스프링쿨러
만 있어요. 그래서 노지처럼 겨울에는 휴경을 해요.
경운기를 이용해서 밭의 일부만 경운하고, 반정도



는 비닐멀칭을 하고 있어요. 내년엔 멀칭을 비닐말고 다른소재를 사용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닭장 안에는 큰 뽕나무를 심고, 방조망에는 오미자를 키워 덩쿨을 올려서 그늘을 만들어 줬죠. 그 잎과 열매를 닭들도 먹고요.

초당 옥수수 사이사이에는 들깨를 심었어요. 멧돼지가 옥수수와 땅콩, 고구마, 참외, 고추 등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옥수수밭이 수확 직전에 습격당해 모두 망가졌어요. 몇개 남은 옥수수도 멧돼지가 또 찾아올까봐 그냥 미리 베어냈어요.



가평에 펜션이 많아지면서 먹을 게 없어져 배고픈데 개체수는 많아지니 자꾸 밭을 습격하러 오는 거예요. 닭장 벽도 뜯어 놓아서 닭장을 보완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요. 그래도 멧돼지도 먹고 살아야지요. 어찌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먹을게 없어져서 그



런 건데. 다만 마르쉐에 새롭게 내보내려고 개구리
참외며 이것저것 심었는데 멧돼지가 와서 초토화된
게 많이 아쉽죠.

밭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닭들도 다 먹으니까
요. 여기는 하늘마인데, 마가 공중에 달려요. 그 옆
에 강낭콩, 토종콩도 올리고 우리집의 자랑인 토종
조선오이도 있죠. 이 오이는 그냥 먹어도, 노각으로
먹어도 맛있고 늦가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재래종 쥐이빨 옥수수도 키우고, 양배추는 젓가락
으로 손수 벌레를 잡아가며 키운 거예요. 같은 배추
도 양배추는 벌레가 많이 오거든요. 그 옆의 마늘밭
은 10월 중순~6월까지 마늘을 키우고 수확 후에는
8월 초순까지 순차적으로 들깨를 심어요. 농가에서
키우기 쉬운 작물 중 하나죠. 깻잎은 계속 나니까 먼
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향긋하고 부드러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파, 마늘, 로메인, 버터헤드 등도
딸이 모를 워낙 잘 키워서 다 잘 자랐어요. 밭농사의
핵심은 모농사죠. 이상하게 저는 모농사는 잘 안되
서, 딸이 모를 키워주면 저는 잘 키우는 담당이에요.

우리집의 제일 큰 보물은 닭똥이에요. 닭똥을 숙성
시켜 퇴비로 만들어 주면 땅이 금세 부드러워지고
좋은 향이 나죠. 좋은 땅이 우리 큰 자랑거리예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기운만 있으면 땅을 더 가꾸



고 싶어요. 사과와 막걸리로 발효시킨 영양제도 채소에 뿌려주고 있어요. 깻묵 액비도 제가 직접 만드죠. 발효할 때 냄새는 독하지만 고농축 영양제예요. 막걸리발효액, 발효미생물희석액등도 손수 만들어 퇴비 및 영양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화학농약 대신 자닢오일, 자닢유황, 막걸리트랩, 끈끈이, 은행잎등을 활용해 천연해충방제를 하고요. 제초제 대신 손과, 예초기를 사용해 풀을 매요. 제거한 풀은 닭도 주고 거름으로도 활용합니다. 김을 매서 바닥에 깔아놓으면 거름도 되고 자연스레 멀칭효과를 보기도 하니까요.

서로다른 작물을 같이 재배함으로써 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공부하고 실제로 작물재배에 적용해봐요. 효과를 보게 되면 다음해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노하우가 꽤 많아요. 고추밭에 배추를 듬성듬성 같이 재배하면



고추에 피해를 입히는 진딧물이 배추에 달라붙어 고추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배추는 닭에게 줄 수 있으니 마음이 덜 무겁죠. 그렇게 파, 옥수수, 보리 등을 진딧물 유인책으로 같이 심어요. 파의 독성은 벌레기피제로도 쓰이죠. 고추에 세균성 반점 바이러스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자닭 오일, EM, 막걸리를 뿌려주고 있죠. 녹두는 콩에 꼬이는 노린재를 대신 꼬시는 역할을 해요. 노린재가 하도 극성이라 밤에 3번씩 와서 손으로 노린재를 잡은 적도 있죠. 노린재 방제 농약은 너무 독해서 다른 작물에 닿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약은 안 쳐요. 멜론이나 참외도 질소, 화학비료를 많이 준 건 먹었



을 때 목이 메여요. 주키니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죠? 닭똥 퇴비로 만든 땅의 힘인 것 같아요. 화학비료로는 이렇게 크게 못 키우죠. 닭똥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만들어온 땅이라 흙도 새카맣고 작물이 잘 자라요.





황진옥: 아버지는 ‘똥박사’로 불릴만큼 흙을 제대로 만들고 흙이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힘써오셨어요. 유기농업을 비롯해 책을 방대하게 읽으며 연구하셨죠. 원래 이 동네는 다 제초제를 썼는데 아버지가 최초로 제초제를 끊고, 거기다 농약까지 끊은 분이세요. 유기농인증은 저희가 어디 납품하는 게 아니다보니 번거로워서 안 받았지만, 정말 제대로 농사 짓고 계세요. 농업대학에서 자닭 강의를 듣고 직접 만들어쓰시기 시작했구요. 매일 낙엽을 긁어 새벽부터 부지런히 퇴비를 만드시죠. 그렇게 땅을 잘 관리해오셨어요. 땅의 힘도 워낙 좋고, 아버지가 농사 지식이 깊으시니 작년엔 배추가 엄청 크게 자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온 적도 있었어요. 흙을 얻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쌀은 쥐도 흙은 못 준다 하세요.

아버지는 농사짓기 전에 출판사에서 일하셨는데,



건강이 안좋아지시면서 귀농을 하셨고, 주로 도매 시장에 머위를 파셨어요. 우리집 머위가 정말 크고 맛있어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유기농법으로 키웠어도 그냥 관행으로 키운 것과 구분없이 같이 판매하셨었죠. 부모님은 워낙에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농사를 지으셨으니,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만큼 돌아오는게 적었어요. 그러다가 마르쉐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어요. 농사지는 걸로 주변 지인한테 맛있다는 말은 들어도, 도시민들이 장보며 좋아해주는 경험은 처음이셔서 두분이 제2의 전성기라 하실만큼 마르쉐를 반가워하고 좋아하세요.



마르쉐에 가져가려고 올해 초 일찌감치 초당옥수수 모종을 내서 시차를 두고 공들여 심었어요. 알도 알알이 잘 박히고, 살짝 맛만 봐도 너무 맛있다고 얼마 기대가 크셨는데 멧돼지가 짹 밀고 가는 바람에 정말 마음아파하셨죠.



모종은 저희 부부가 다 내서 드리면 부모님이 키우세요. 제가 모종 내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온실을 똑딱 만들죠. 저희는 땅이 워낙 좋으니 뭘 심을지가 중요한 고민이에요. 닭들이 있으니 채소가 벌레 먹거나 작황이 안좋아도 ‘닭이 맛있게 먹겠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요. 순환 농업의 힘이죠.

농사가 참 재밌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고,

꾸준히 쌓이는 느낌이 있죠.

작물을 더 연구해서

파파팜&밀마운트만의 농법으로 키우고 싶어요.



유봉호: 농사가 참 재밌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고, 꾸준히 쌓이는 느낌이 있죠.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고, 농촌은 시간이 갈수록 플러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시간이 쌓이면 훨씬 좋은 곳이 농촌이죠.



저는 대학 회계, 물품 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였는데, 프로그램은 만들면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농사는 심으면 기본 몇개월, 몇년을 기다려야하니까 처음엔 그게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땅이 좋아지고, 닭과 함께 자연스러운 순환 농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농사짓는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늘 마감 맞춰 살았는데 농촌 와서 기다림, 여유, 시간의 매력을 알았어요.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치열하게 일하는데, 저희 정도는 별거 아니죠. 바쁘다가도 집 2층에서 보이는 노을,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야경과 산새를 보며 쉬어가고요.



황진옥: 귀농한 초반 1-2년은 수시로 후회를 했어요. 끝없는 육체노동이 익숙치않아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문화와 농촌문화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이웃과의 담벼락이 없는 농촌이다보니, 약속도 잡지않고 집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이웃분들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았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 귀농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있죠!



귀농을 하고싶은 분들께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무모하게 귀농하기보다 단계별 귀농을 계획해 보는 것을 권해요. 고등학교까지 농촌에서 살던 저조차도 1년 넘게 귀농준비를 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귀향했음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라던지, 도시농부학교, 도시텃밭도 경험해보시고 귀농을 꿈꿔보셨음해요. 어느 영역이던지 첫발을 떼어 시작하는것이 출발이니깐요. 현재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시작해보기가 귀농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겠죠.



농부로서 앞으로 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생긴 꿈 중 하나는 좀 더 작물을 공부하고 싶어요. 작물의 재배, 작물의 쓰임새, 다양한 작물을 연구하며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귀농을 마음 먹었을 때가 ‘이 작물이 어느 농부의 손에서 재배되었는가?’에서 질문이 멈춰졌을때였어요. 그 지점에서 저의 농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이것은 파파팜&밀마운트 농부의 농법으로 재배된 작물’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같은 이름의 채소라도

어디서 누구의 손에 어떻게 키워지는지,
그 차이를 소비자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황진옥: 저희는 양계와 채소 그리고 가공을 같이 하고 있어요. 계란이 최근 세간에 많은 이슈가 되어 공장식 계란이 아닌 자연방사, 자연방목, 동물복지와 같은 계란이 주목을 받게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되어 소비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채소의 재배환경도 관심을 갖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넓은 공장식 비닐하우스에서 화학비료로 재배되어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채소들과 저희 마르쉐시장에 참여하는 농부님들이 재배



하신 채소들이 비록 같은 이름을 붙여 사용하지만,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채소가 요구되는 만큼 공장식 비닐하우스의
채소를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 차이
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간혹, “일반마트에서는
얼마인데 여긴 왜 더 비싸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
디서부터 답을 드려야할지 막막할때가 있어요.

이 채소가 어디서부터 누구의 손에 어떻게 키워지
고 수확되어지는지를 아시게되면 채소의 맛은 차
치하더라도 소비자분들이 교환하시는 돈의 액수가
결코 아깝지 않음을 아시게될거라 믿어요.

농부가 가장 듣고싶은 말은, 단연코 ‘계란이, 채소
가, 제품이 정말 좋고 맛있어요’가 아닐까요? 그 말
을 들으면 농사로 지친 몸의 세포들이 갑자기 활성화
되어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을 느껴요!

